

연결어미 ‘-으니까’의 방언 분포와 분화

김 영 규*

I. 서론

연결어미 ‘-으니까’는 19세기에 ‘-으니’로부터 발달했다. 리의도(1990)에 따르면, ‘-으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ㅅ’가 결합한 ‘-으니ㅅ’가 19세기 말부터 출현한다. 고영근(1997) 등은 ‘-으니’에 ‘-까’의 결합으로, 서태룡(1988), 안주호(2006) 등은 ‘-으니+ㅅ+가’로 분석한다.

‘-으니까’의 방언형 연구로는 황병순(2006)이 있다. 황병순(2006)은 ‘-으니까’ 밑에 결합하는 요소들을 문맥조사, 담화표지, 양태조사의 문법화된 소산으로 분석하고, 결합된 요소와 그 순서를 근거로 제방언형을 분류했다. 이기갑(2003), 최명옥(2015)에는 전라도 방언형이 짧게 언급된다. 이기갑(2003)에 서는 이 방언에서 ‘-으니까’의 ‘까’가 ‘께’로 실현되고, 전라북도에서는 ‘-으니께, -응께’로 남을 서술했다. 최명옥(2015)은 ‘*-으니까ㄴV’를 재구하고, ‘ㄴ’이 탈락해 ‘-응ㅁY’를 이룬다고 했다. 한편, 경상도 방언에서는 비모음화의 전형으로서 ‘-으이께(네)’가 주목받아왔는데, 이병선(1967b), 최명옥(1974), 최림식(1992), 이문규(1993), 이진호(2001), 최명옥(2006), 정인호(2007), 소신애(2009), 한수정(2017)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론적 처리는 서로 간에 사뭇 다르지만, /ㄴ/ 구개음화를 겪은 방언에서 ‘Vni’ 연쇄가 [Ṽi]로 실현됨을 공통되게 관찰하고 있다. 즉, 이 방언에서 ‘-으니께’가 ‘-으이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로 실현됨을 보고했다.

어미의 방언분포를 살피고 그 분화를 추적한 선행연구로 정승철(2002)이 있다. 정승철(2002)은 ‘-으이-’계 설명·의문 종결어미를 몇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방언형들이 형성된 과정을 밝혔다. 연후에 방언분포를 근거로 그 분화를 입체적으로 재구해냈다. 연구관이나 방법론에 있어 본고는 이 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본고는 ‘-으니까’의 방언 분포를 살피고 분화 과정을 밝힌다. 특히, 모음과 장애음 간 ‘ㅇ’의 개재에 대한 두 해석을 제시하고, 각각에 따른 분화의 경로를 밝힌다. 방법론으로서는, 방언재구에 공식적 음운규칙의 규칙순을 응용하는 다소 실험적인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한편, 분화를 기술하는 가운데 근접한 방언 간 공통된 형태가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자료는 오로지 《한국방언자료집》에 의존했다. ‘-으니까’로의 활용형이 조사된 모든 항목을 담고, ‘-아/어서’ 활용을 조사했으나 ‘-으니까’형으로 답변된 항목들을 눈에 띄는 대로 기워 넣었다. 다만, 방언마다 어간의 형태를 확정하기 어려운 ‘값’과 ‘노랑’만은 배제했다. 대부분의 방언에 공통되게 조사된 항목들을 나열해 보이면 〈표 1〉¹⁾과 같다.

〈표 1〉 공통 조사 항목

(*h̥*ⁱ: 분용언 ‘하’, *h̥*ⁱ: ‘해야 하’ 구성의 ‘하’)

자음어간	막, 알 , 없 , 낱 , 들, 묻
모음어간	<i>h̥</i> ⁱ, <i>h̥</i> ⁱ, 보, 흐르
‘ㄷ’ 불규칙어간	들, 묻
‘ㄹ’ 불규칙어간	알, 살, 들
‘ㅅ’ 불규칙어간	긋, 낫
‘ㅂ’ 불규칙어간	뜯, 무삼, 가뻘, 어럽

1) 표준어에서는 불규칙활용하지만, 방언에 따라 규칙용언인 것들이 더러 있다. 활용의 정칙성이나 어간말음에 따른 ‘-으니까’의 변이는 없었다.

II. 전라도, 충청도 방언에서의 분화

1. 형태와 그 분포

전라도, 충청도 방언에 나타나는 ‘-으니까’의 어형들을 두 축으로 분석해 <표 2>에 제시한다.

한 축에서는 말음절 초성에 따라 두 계열로 분석되고, 다른 한 축에서는 매개모음을 제외한 첫음절의 형태의 따라 네 계열로 분석된다. 곧 8개의 가능한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이중에 ‘-으게’는 나타나지 않으며, ‘-으께’는 완도방언에서만, ‘-으닝게’는 서천방언과 논산방언 그리고 금산방언의 일부 형태에서만 관찰된다. 비교적 넓은 분포를 갖는 나머지 5개 형태, ‘-으께, -으니까, -으닝게, -으께, -으니까’를 이 지역의 주요한 형태로 꼽을 수 있겠다.

말음절 초성에 따른 두 계열은 그 분포가 선명하게 갈린다. <그림 1>의 지도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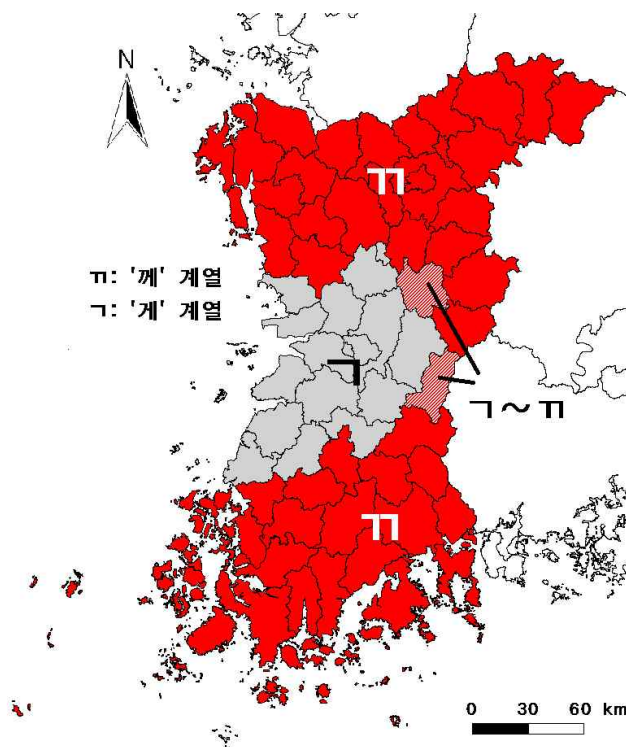
‘께’ 계열이 우세한 가운데 전라북도 일원에 ‘게’ 계열이 고립된 분포를 보인다. 장수방언과 금산방언은 두 계열권 간 접촉방언으로서 양 계열이 병존하고 있다. ‘께’ 계열을 원형으로 ‘게’ 계열을 형성하는 개신이 전라북도 서부에서 전파되었음을 암시한다.

매개모음을 제외한 첫음절의 형태에 따른 네 계열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분포를 갖는다.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그림 2>의 지도를 참조한다.²⁾

<표 2> 충청도, 전라도 방언의 ‘-으니까’의 형태

	‘ㅁ’ 계열	‘ㅇ’ 계열	‘ㄴ’ 계열	‘ㄴ’ 계열
‘게’ 계열	*-으께	-으께	-으니까	-으닝게
‘께’ 계열	-으께	-으께	-으니까	-으닝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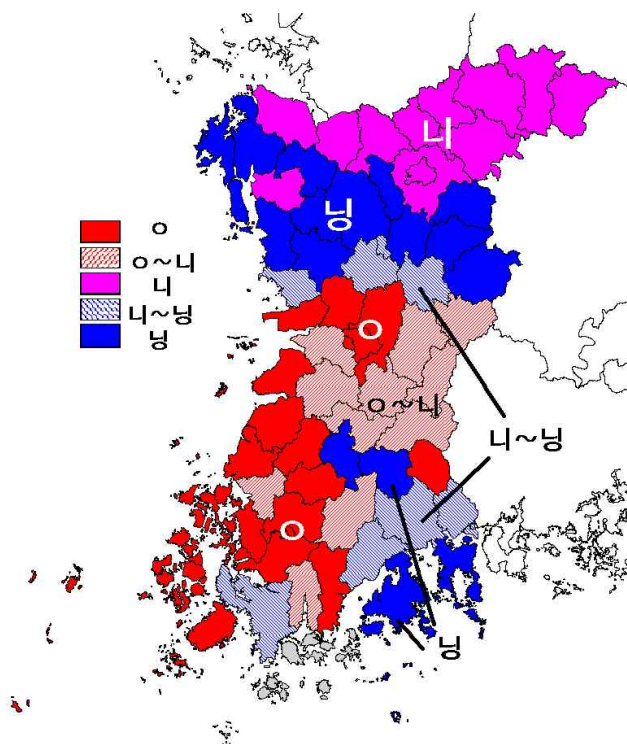
2) 앞으로 보다 적절하고 가독성 높은 시각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는 무늬와 문자 기호를 중복한 미봉책을 취한다.



〈그림 1〉 전라도, 충청도 방언의 ‘개’/‘네’ 계열의 분포

‘니’ 계열은 충청도 북부를 독점하고, 전라도에서도 국지적으로 다른 계열과 병존하며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다. ‘닝’ 계열은 충청도 남부와 전라남도 동부에, ‘ㅇ’ 계열은 ‘니’ 계열과 병존하며 전라도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특히 전라도 서부에 독점적으로 나타난다. ‘ㅇ’ 계열은 완도방언의 특수한 형태이다. 요컨대, 경기도 방언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며, ‘니’ 계열, ‘닝’ 계열, ‘니’ 계열과 ‘ㅇ’ 계열, 다시 ‘닝’ 계열의 교호를 이루는 매우 독특한 분포가 관찰된다.

그런데 《호남 구전자료집》 중에는 장흥방언, 강진방언, 나주방언의 채록에 ‘닝’ 계열이 적잖이 나타난다.



〈그림 2〉 전라도, 충청도 방언의 ‘o’/‘ni’/‘ning’ 계열의 분포
(단, 완도방언은 ‘∅’ 계열)

- (1) 밥술이 없으니까 그 자기 부인이 이자 와. [장진]
- (2) 그러니까 암탉이 알을 낳아서, 알을 많이 낳아서 마을이 형성됐다. [나주]
- (3) 그러니까 그것이 와전이, 지금은 이렇게 말하자는 정보화돼갔고... [장흥]

‘ning’ 계열이 실제로는 해남방언에서 여수방언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에 걸쳐, 넓고 연속적으로 분포할는지 모른다. 그런데, 강진편을 제외하면, 이들은 대개 실사 어간에는 쓰이지 않고 ‘그러니까, 허니까’ 혹은 인용문+‘-으니까’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아마도 ‘ni’가 담화상의 어떠한 기능을 맡는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는 분포의 실재를 가늠해보는 데에 그친다.

이상 두 지도를 종합해 아래의 도해를 얻는다. 완도방언의 ‘-으께’, 서천

서울 / 경기 / 영서 -으니까		
충청 북부 -으니까		
충청 남부 -으니까		
전북 서부 -으니까	전북 동부 -으니까~으니까	
전남 서부 -으니까	전남 중부 -으니까~으니까~으니까	전남 동부 -으니까

〈그림 3〉 전라도, 충청도 방언 ‘-으니까’의 방언지도

방언, 논산방언의 ‘-으니까’는 신지 않았다.

2. 분화

중부방언을 비롯해 국어 제방언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으니까’를 원형으로 삼는다. 전라도, 충청도 방언에서 말음절은 언제나 ‘께’인데, 이에 대해서는 서론에서의 언급으로 같음한다. ‘-으니까’의 분화를 추적함으로 2.1.에서 보였던 분포를 다소간 설명할 수 있다.

‘-으니까’를 원형으로 다음의 개신들이 있었을 것임이 추정된다.

- (4) 개신1. /ㄱ/ /ㄱ/ 약화: ‘니께’가 ‘니께’로 되었다.
- (5) 개신2. /ㄴ/ 탈락: ‘니께/니께’가 ‘ㅇ께/ㅇ께’로 되었다.
- (6) 개신3. /ㅇ/ 개재: ‘니께/니께’가 ‘닝께/닝께’로 되었다.

파열음의 모음간 유성음화(1.), 어중모음탈락(2.), 장애음 앞 동일 조음위치의 비음 삽입(3.)³⁾은 국어에서 흔히 혹은 더러 관찰되는 현상으로, 개신 1~3. 모두 자연성을 갖추었다고 함직하다.

3) 그런데 개신3.의 변화는 ‘이제, 까치’ > ‘인제, 칸치’ 등에서의 비음 삽입과는 이질적일는지 모른다. 이에 대한 가설을 II.3.에 서술한다.

1) 개신1. > 개신2.

이제 이들의 순서를 추적한다. 우선, 개신1.과 개신2.의 선후관계를 임의로 가정해 변화를 전개하면, (7~8)와 같다. 하첨자는 (4~6)에서 부여한 개신의 번호이다.

(7) 으니께 >₁ 으니께 >₂ 응께

(8) 으니께 >₂ 응께 >₁ 응께

이때, 전라북도 일원에 ‘게’ 계열이 분포하며 또한 인접한 지역과는 배타적으로 나타나므로, 개신1. 혹은 그것이 관여한 일련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은 전북 방언형에 대한 완전한 설명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7)이 ‘-으니께’와 ‘-응께’를 설명해내는 반면, (8)의 ‘-응께’는 전북 방언형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가설 중 (7), 즉 개신1.이 먼저, 개신2.가 나중에 발생한 편을 채택한다.

2) 개신2. < 개신3.

한편, 이진호(2011)는 King(1969), Kiparsky(1982)를 참고해 새로이 형성된 규칙은 종래의 것보다 늦게 적용되므로, 곧 새로운 규칙은 당대의 표면형을 입력으로 취한다고 말한다. 이는 공시대에서의 규칙순이 규칙의 통시적 발달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인데, 방언분화를 추적하는 데 있어 규칙순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규칙순을 논하건대, 개신2.를 일으키는 규칙과 개신3.을 일으키는 규칙은 역저지(counterbleeding)관계에 있다. 개신2. 규칙이 먼저 적용됐더라면, 개신3. 규칙은 적용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개신2.가 개신3.에 선행했다면, 개신3.은 일어날 수 없었다.

(9) 입력형	/으니까/
개신2. /1/ 탈락	은께
위치동화	응께
출력형	[으께]
입력형	/응께/
개신3. /ㅇ/ 개제	-
출력형	[으께]

(10) 입력형	/으니까/
개신3. /ㅇ/ 개제	으닝께
출력형	[으닝께]
입력형	/으닝께/
개신2. /1/ 탈락	으-ㅇ께
자음탈락	응께
출력형	[으께]

전남동부형,
충청방언형

개신3.에 의한 전남 동부와 충청도의 방언형을 설명하기 위해, 즉 개신3.의 적용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10)에서처럼 개신3.이 개신2.에 선행해야 한다. (9)는 이미 /ㄱ/에 선행하는 /ㅇ/을 갖추어 개신3.이 적용될 수 없거나 적용되더라도 ‘-으닝께’를 도출하지 못한다.

3) 개신1. > < 개신3.

마지막으로, 개신2.에 선행하는 두 개신, 개신1.과 개신3.의 선후관계를 정하는 작업이 남았다. 그런데 개신1.에 의한 ‘게’ 계열(G)과 개신3.에 의한 ‘닝’ 계열(N)은 그 분포가 매우 좁으며, 두 개신의 결과라기보다 인접한 방언 간 혼효형으로써도 잘 설명되므로, 두 개신의 선후를 정하기란 크게 쓸모 있지 않아 보인다. 관련해서 다음 절에 상술한다.

(11) 으니까 >₁ 으니까 (>₃ 으닝께)

(12) 으니까 >₃ 으닝께 (>₁ 으닝께)

(11)은 개신1.이 일어난 전북 방언형을 설명하고, (12)는 전남에서의 분화를 잘 설명한다. 어느 한 편만을 기각할 논거가 없어 보인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이 지역에서 ‘-으니까’의 분화 과정을 재구할 수 있다.

전라북도 서부로부터 /ㅍ/ > /ㄱ/의 약화(개신1.)가 확산되어, 전라북도 방언 ‘-으니까’가 충청도, 전라남도의 ‘-으니까’에서 분화한다. 이어 발생한 /ㅇ/ 삽입(개신3.)으로 인해, 전남 서부에 ‘-으니까’가 고립되고 전남 동부와 충청도에 ‘-으니까’가 형성된다. 두 개신의 순서는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그 역이었다면 ‘-으니까’가 먼저 분화하고 연후에 전북 방언 ‘-으니까’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서부로부터 /ㄴ/ 탈락(개신2.)이 전파되어, 전북 서부에 ‘-으니까’를, 전남 서부에 ‘으니까’를 형성한다. 이 개신은 동쪽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전북 동부에 ‘-으니까’와 ‘-으니까’를 병존케 하고, 전남 동부에도 ‘-으니까’와 ‘-으니까’를 병존케 했다.

개신1.이 개신3.에 선행하는 것으로 가정한 채, (14~19)에 방언권마다 대표형들의 형성 과정을 제시했다. 단, /ㅇ/ 개재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한다.

	(13) 청양 (충청 남부)	(14) 전주 (전북 서부)	(15) 진안 (전북 동부)	(16) 나주 (전남 서부)
고형	‘떡-으니까’	‘떡-으니까’	‘도우-니까’	‘묵-으니까’
1. /ㅍ/ > /ㄱ/ 약화	-	머그니까	도우니까	-
2. /ㅇ/ 개재	머그니까	-	-	-
3. /ㄴ/ 탈락	-	머근게	-	무근게
자음 탈락	-	-	-	-
자음동화	-	머금게	-	무금게
개신형	‘머그니까’	‘머금게’	‘도우니까’	‘무금게’

	(17) 함평 (전남 중부)	(18) 보성 (전남 중부)	(19) 고흥 (전남 동부)
고형	‘떡으니까’	‘묵으니까’	‘묵으니까’
1. /ㅍ/ / ㄱ/ 약화	-	-	-
2. /ㅇ/ 개재	-	무그녕께	무그녕께
3. /ㅣ/ 탈락	-	무그ㄴㅇ께	-
자음 탈락	-	무궁께	-
자음 동화	-	-	-
개신형	‘머그니까’	‘무궁께’	‘무그녕께’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동일한 반사형이 서로 다른 분화 과정을 거쳐 형성될 수 있음이다. /ㅣ/ 탈락의 세가 커서 ‘ㅇ’ 계열이 넓게 나타나는데, 전남 동부에서 ‘ㅇ’ 계열의 형성이 흥미롭다. (14, 16) 등 다른 방언권의 ‘ㅇ’은 /ㅣ/가 탈락한 후 그에 선행하던 /ㄴ/이 뒤따르던 /ㄱ, ㅍ/에 접변해 된 소리이다. 반면, 전남 동부방언의 (18)은 이 지역 개신형인 /ㅇ/ 삽입형에서 /ㅣ/ 탈락한 후, /ㄴ/과 /ㅇ/이 충돌해 그 중에 강도가 높은 /ㅇ/이 남은 형태이다. 정승철(2008)은 상호 이격된 방언 간에 공통되는 방언현상을 두고, 그 사이에서 발생한 개신을 양편이 수용하지 않아 잔존형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14, 16)과 (18)의 사례는, 제법 가까운 방언 간의 공통된 형태가 서로 다른 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밝히어, 정승철(2008)과 보완적인 관계에서 시사점을 준다.

3. ‘ㅇ’의 개재에 대한 두 가설

앞서 II.2.에서 세 개신의 순서를 재구함으로 오늘날 전라도와 충청도에 나타나는 ‘-으니까’의 다양한 방언형들의 형성 과정을 밝혔다. 이때 ‘-으니까’의 분포가 극히 좁을뿐더러 그 분포로 보아 혼효형으로 짐작되므로, 둘의

선후관계는 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널리 관찰되는 형태를 설명해내는 것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의 방언에는 관찰되지 않는 내지는 좁게 나타나는 형태를 설명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겨진다.

또한, ‘-으니까’의 형성이 크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전북 방언에서 ‘-으니까’까지 변화가 전개되지 못한 까닭 또한 수수께끼이다. (11)은 ‘-으니까’가 형성된 후에 다른 방언에서처럼 ‘ㅇ’이 개재되어 ‘-으니까’가 분화하는 경로이고, (12)는 ‘-으니까’에서 유성음 간 약화를 거쳐 ‘-으니까’가 분화하는 경로인데, 모두 있음직한 변화로 생각된다.

(11) 으니까 >₁ 으니까 >₃ 으니까

(12) 으니까 >₃ 으니까 >₁ 으니까

그런데 이들 간의 차이는 개재되는 ‘ㅇ’의 정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듯하다. 이제 경음 앞과 평음 앞에서 ‘ㅇ’이 발생하는 변화는 그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개신3.을 어느 편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방언분화 과정을 달리 재구성하게 됨을 논술할 것이다. 경음 앞에서 ‘ㅇ’의 개재는 경음의 부분비음화요, 평음 앞에서는 [-cont.]를 보존하기 위한 비지속음 삽입이다.

1) 경음 앞 ‘ㅇ’ 개재: 경음의 부분비음화로 인한 비지속음 삽입

장애음 앞에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이 삽입되는 현상은 국어사의 기술에서 나(이병선, 1966; 1967a; 소신애, 2010 등) 혹은 현대국어방언의 기술에서(김소영, 2013 등) 널리 보고된바 있다. 그 동인은 비음이 삽입됨으로써 후행하는 장애음의 조음편이 혹은 청각인상의 강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이 지목된다. ‘-으니까’에서 ‘-으니까’로의 개신 또한 이 현상의 일례로 여길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으니까’에 비음이 선행함에 주목해 ‘ㅇ’이 발생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바로 /ㅇ/이 새로이 삽입된다기보다는 /ㄱ/가 부분적으로 비음화되어 [이이] 발음된다는 것이다. 곧 /ㄴ/의 조음에서 비강이 개방된 상태가 /ㄱ/의 폐색구간에까지 지속된다면, 비강의 개방과

〈표 3〉 ‘-으니까’ ‘-으니까’에서의 /ㅈ/의 부분비음화

본래의 발음	i		ɲ		i		k'	E
비강의 개폐	폐색	개방					폐색	
혀의 위치	고	이동	구개에 접면	고		연구개에 접면	중	
성대의 진동	진동						진동 없음	진동
연구개의 개폐	개방						폐색	개방
자연스러운 발음	i		ɲ		ɪ	ŋ	k'	E

연구개 폐색이 중첩되는 바로 그 구간을 우리는 /o/으로 포착하게 된다.

〈표 3〉에서 /ㄴ/의 조음을 전후해서도 비강이 개방되어 있는데, 어중의 약화된 /l/를 거쳐 /ㅈ/의 폐색구간에까지 개방 상태가 유지될 때, 연구개가 폐색된 채로 비강으로 숨이 나가는 구간(빗금)이 발생한다. 연구개가 폐색된 채 나는 비음이 곧 [이이]므로, ‘-으니까’의 [으니까]로의 변화가 유도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단히 점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다가, 이 소리가 화자들에 의식되어 기저형에 정립되면 비로소 ‘-으니까’가 형성된다. 따라서 기저형에의 정립 이전 단계는 “/ㅈ/의 부분비음화”로 보아야 하며, 정립된 이후에 비로소 “/o/의 삽입”이 정의될 수 있다.

이때에 1) 선행하는 비음성이 강할수록, 2) /l/가 약하고 짧을수록, 3) /ㅈ/의 폐색구간이 길수록 [이이] 출현하기 쉬운 환경이 될 것이다. 1) 이상도·김수정(2007)은 비자음의 위치와 인접한 모음의 위치 등에 따라 비자음이 인접한 모음을 비음화하는 효과를 실험했다. 어중의 비자음이 후행하는 모음을 비음화하는 작용이 가장 강했는데, 그들의 실험에서는 모음 구간 중 평균 92%가량이 비음화되었다. ‘-으니까’의 /l/가 바로 이 환경에 해당한다. 2) 최성원·전종호(1998)는 경음, 격음이 따르는 경우에 평음이 따르는 경우보다 선행모음의 길이가 유의하게 짧음을 실증했다. ‘-으니까’에 비해 ‘-으니까’에서 /l/의 지속구간이 더 짧은 것이다. 3) 경음이 평음, 격음보다 폐색구간이 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l/에 평음이 뒤따르는 ‘-으니까’보다는 ‘-으니까’에서 부분비음화가 더 개연적이다. 이것이 전북 방

언에 ‘-으니까’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다.

다음의 방언형과 방언분포 또한 이 가설을 지지한다고 생각된다. 《한국 방언자료집》에는 충청북도 남부, 곧 보은방언, 옥천방언, 영동방언이 거의 모든 어간에 ‘inyi^ㄴk’E’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는데, 청주 이북에서 ‘inyikE’만을 갖는 것과 대비된다. 이때 ‘ㄴ’(약화된 ‘ㅇ’)로 전사된 소리가 /ɲ/의 부분비음화된 소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상도 방언에서도 ‘ɕi^ㄴk’E, ɕi^ㄴk’a, ɕi^ㄴk’anE, ɕi^ㄴk’inE’ 등이 국지적으로 분포하는데, 이들 또한 /ɲ/의 부분비음화된 소리를 전사한 것이다. 이 형태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또 어휘마다 출현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ɲ/의 부분비음화가 기저형에 /o/이 삽입되는 단계에 들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2) 부분비음화에 따른 분화

위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개신1.이 먼저 일어난 후에 개신3.이 일어날 경우(20)에 전북 방언에 ‘-으니까’가 저지됨이 설명된다.

(20) 입력형	/으니까/
개신1. 약화	으니까
출력형	[으니까]
입력형	/으니까/
개신3. 부분비음화	-
출력형	-

저지된
형태

(21) 입력형	/으니까/
개신3. 부분비음화	으니까
출력형	[으니까]
입력형	/으니까/
개신1. 약화	으니까
출력형	*[으니까]

앞서 규칙순의 개념으로써 방언분화를 재구하는 방법론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개신1.은 개신3.을 저지하는 관계(bleeding)에 있다. 전북 방언에 ‘-으니까’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개신3.이 저지된 데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20)이 (21)보다 타당하다. 즉, /ɲ/의 부분비음화 개신이 전라북도 일원

에까지 확산하지 못한 것은, 이미 이 지역 방언이 ‘게’ 계열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분비음화의 환경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또한, 같은 조음위치의 연음 충돌을 저지하려는 작용도 기여했을 것이다. ‘-으니께’의 /ㄱ/이 모음간에서 [g] 혹은 [ɣ]로 실현되므로, 같은 부류인 연구개연음 /ㅇ/의 삽입을 저지했을 개연성이 있다. 서천방언과 논산방언에는 ‘-으닝께’와 ‘-웅께’ 간 혼효형으로서 ‘-으닝께’가 나타난다.

다만, /ㄱ/의 부분비음화가 기저형의 /ㅇ/ 삽입이라는 음운층위의 현상으로 정립된 연후에도 여전히 ‘-으니께’에서 저지되었을까 하는 의구가 남는다. 또한, 전남 서부에서는 왜 부분비음화에 따른 /ㅇ/ 삽입이 없었는지 또한 의문이다.⁴⁾

3) 평음 앞 ‘ㅇ’ 개재: [-cont.]의 보존을 위한 비지속음 삽입

한편, ‘-으니께’에서 /ㅇ/이 삽입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국어사에서 흔히 관찰되는 장애음 앞에 조음위치가 같은 비음이 삽입하는 현상으로 여길 수 있다. 단, 본고가 다루는 ‘-으니께’의 분화화는 거리가 있으므로, ‘-으닝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짧은 가설의 서술로만 그치겠다.

〈표 4〉와 같이, 비지속음 /ㅇ/의 삽입으로써 /ㄱ/은 [-cont.]를 보존하게 된다. ‘-으니께’에서 /ㄱ/은 대략 [ɣ]로 실현될 텐데, 기저형의 [-cont.]를 잃게 된다. 이때, 기저형과 표면형을 일치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하게 되고, 비지속음을 삽입함으로써 [-cont.]를 보존한다. 삽입되는 소리는 물론 연구개비지속음 /ㄱ/과 /ㅇ/이 기대되는데, 삽입에 덜 유효적인 /ㅇ/을 삽입한다. 더구나 /ㄱ/의 삽입은 후행하는 /ㄱ/을 경음화해, 기저형과 더 멀어지게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전남 서부의 ‘-웅께’ 또한 부분비음화를 겪은 ‘-으닝께’에서 /ㄴ/이 탈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다. 하지만 이 지역에 ‘-으닝께’ ‘-웅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으니께’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둘째는, 필자의 주관적인 관찰이나 이 지역 화자 중에 ‘-으닝께’를 갖는 이들이 더러 있어서이다. 이를테면 ‘보니까’에 대응하는 방언형이 [ponkʰɛ]인 것이다. 이 /ㄴ/은 ‘-으니까’에서 /ㄴ/이 탈락하고 남은 /ㄴ/일 테므로, 부분비음화를 면한 ‘-으니까’가 이 지역에 남아있었다는 근거로 생각된다.

〈표 4〉 ‘-으니께’·‘-으닝께’에서의 /o/ 삽입

본래의 발음	i		ɲ		i			ʏ	E	
성대의 진동	진동									
혀의 위치	고	이동	구개에 접면		고			연구개에 접근	중	
연구개의 개폐	개방									
삽입 후의 발음	i		ɲ		i		ɿ	g	E	
성대의 진동	진동									
혀의 위치	고	이동	구개에 접면		고			연구개에 접면	중	
연구개의 개폐	개방							폐쇄	개방	

이때에, /o/이 삽입되는 환경은 후행하는 파열음소가 비지속성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경음 앞에서보다는 평음 앞에서 /o/의 삽입이 더 개연적이다. 따라서 ‘-으니께’보다는 ‘-으닝께’에서 /o/의 삽입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가설은 경음 앞에서도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이 삽입되는 국어의 보편적인 비음 삽입 현상을 포괄하지 못한다. 다만, 경음, 격음 앞에서의 비음 삽입과 평음 앞에서의 비음 삽입이 과연 등질적인 현상인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삽입의 동기는 무엇인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4) 비지속음 삽입에 따른 분화

개신3.의 정체를 위와 같이 파악한다면, (22~23)과 같은 분화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22)가 (23)보다 타당해 보인다. (22)는 ‘으니께’와 ‘으닝께’, ‘응께’를 모두 설명한다. 서천방언, 논산방언은 ‘으닝께’를 갖고, 전북 방언은 ‘으니께’ 및 ‘으닝께’에서 /l/ 탈락한 ‘응께’를 갖는다. 반면, (23)에서는 공허한 /o/ 삽입 개신이 일어난다는 잉여적인 과정이 재구되며, ‘으니께’만을 (뒤이은 개신2.를 포함하면 ‘응께’까지를) 설명한다.

(22) 입력형	/으니께/
개신1. 약화	으니께
출력형	[으니께]
입력형	/으니께/
개신3. /ㅇ/ 삽입	으닝께
출력형	[으닝께]

(23) 입력형	/으니께/
개신3. /ㅇ/ 삽입	-
출력형	[으니께]
입력형	/으니께/
개신1. 약화	으니께
출력형	[으니께]

그런데 충청도의 ‘으닝께’에서의 /ㅇ/ 삽입은 경음 앞에서의 것임이 자명하므로, (22, 23)와는 독립된 개신으로 보아야 한다. 즉, ‘으니께’가 /ㄱ/의 부분비음화를 거쳐 ‘으닝께’가 되는 것이다. 이는 멀리 이격된 전라남도 동부의 ‘으닝께’와 그 형태 및 분화 과정이 일치한다. 앞서 인용했듯, 정승철(2008)은 이와 같은 현상을 개신의 전파가 미치지 못한 방언들이 고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여기서도 그 해석이 또한 적용된다.

5) 소결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전라도, 충청도 방언에서 ‘-으니께’의 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으니께’의 발달에서 ‘ㅇ’의 개재를 두 가지 이질적인 현상으로 해석해보았다. 비음과 경음 사이에서 ‘ㅇ’의 발생은 새로이 삽입된 것이 아니라, 경음의 폐색구간이 비강을 통해 소리난 것이므로 ‘부분비음화’라고 하겠다. 부분비음화된 소리 [ㅇ]가 기저형에 정립될 때 비로소 ‘/ㅇ/ 삽입’이 된다. 이는 연구개연음 앞에서는 기대되지 않는다. 한편, 평음 앞에서의 ‘ㅇ’의 발생은 파열음의 [-cont.]를 보존하려는 제약에 준하는 것으로, 완전한 ‘/ㅇ/ 삽입’이다.

‘으닝께’가 나타나지 않고 ‘으니께’가 충청도 남부와 전라남도 동부에 이격된 분포를 보이는 것은, ‘ㅇ’의 개재가 /ㄱ/의 부분비음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분비음화는 /ㄴ/의 비음성이 강할수록, /ㄴ/가 짧을수록, 뒤

따르는 폐색구간이 길수록 개연적이므로, ‘-으니까’보다 ‘-으니까’에서 일어나기 쉽다. 부분비모음화에 따른 /o/ 삽입은 이 지역에 널리 확산되었으나, 전라북도 일원에는 이미 경음의 약화(개신1.)를 겪어 그 동기를 결하게 되었으므로 개신이 저지되었다. 연구개연음의 충돌로 삽입이 저지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서천방언, 논산방언의 ‘-으니까’는 인접한 방언 간 혼효형이다.

IV. 경상도 방언에서의 분화

1. 형태와 그 분포

경상도 방언의 관찰되는 형태들은 <표 5>에서와 같다.

<표 5>의 가능한 6개 형태 중 ‘-으니까’는 관찰되지 않고, ‘-으니까’는 영양방언, 예천방언, 그리고 창원방언 등에서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으니까’는 거창방언과 함양방언의 소수 어휘에 나타난다. 이 방언의 주요한 방언형은 ‘-으니까, -으니까, -으이니까’의 3개라고 하겠다.

비모음화 계열과 비(非)비모음화 계열의 분포는 비교적 선명한 경계를 갖는다. 경상북도 전역과 경상남도 창원 이동은 비모음화된 ‘-으이니까’를 갖고, 경상남도 창원 이서 및 거제방언, 통영방언 등 남해안은 비모음화된 형태를 갖지 않는다. 경남 서부에는 형태소내부에서 /ㄴ/ 비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종래의 보고(정인호, 2007)에 대체로 합치되는 분포이다. 비모음화권에서도 김천방언, 고령방언, 안동방언 등 산발적으로 ‘-으니까’의 병존이 관

<표 5> 동남방언 ‘으니까’의 방언형

	‘ㅇ’ 계열	‘ㄴ’ 계열	‘ㄴ’ 계열
비모음화 계열	-으니까	-으이니까	*-으니까
비(非)비모음화 계열	-으니까	-으니까	-으니까

<p style="text-align: center;">서남부 -응께~으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동북부 -으이께 (~으께~응께)</p>

〈그림 4〉 경상도 방언 ‘-으니까’의 방언지도

찰된다.

‘니’의 변이에 따른 분포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응께’는 비(非)비모음 화권에 넓게 분포하고 비모음화권에도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비(非)비모음화권일지라도 산청방언, 고성방언, 함안방언, 창녕방언에서 ‘-으니까’가 독점적으로 나타났고, 인접한 방언들에서도 ‘-응께’와 병존하는 형태로 적잖이 출현했다. 한편, ‘니’ 계열은 ‘-으이께, -으이끼네’의 형태로 비모음화권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나타난다. 비모음화권의 ‘ㅇ’ 계열, 즉 ‘-으께’는 영양방언 ‘더러끼네(擧), 무러끼네(間), 예천방언 ‘해서께(爲)’ 등 국지적으로 소수 관찰된다.

요컨대 대략적으로 〈그림 4〉의 도해를 얻는다.

2. 분화

경상도 방언에서 ‘-으니까’로부터 ‘-으이께’가 도출되는 과정은 일찍이 최명옥(1974), 박명순(1989) 등에서 설명된 바 있다. 한편, ‘-으이께’를 위시한 비모음화 연구들에서 꾸준히 논란돼온 문제가 바로 비모음(화)을 음운 층위에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이진호, 2001; 최명옥, 2006; 정인호, 2007; 소신애, 2009 등). 일견 ‘-응께’의 /ㅇ/은 기저형 /-으니까/의 비자음이 실현된 것으로, 기저형엔 구강모음형으로만 저장되어있음을 시준하는 것만 같다. 그러나 앞 절에서 관찰한 경상도 방언의 다른 형태들을 설명하는 데에, 비모음(화)형을 입력으로 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다음의 난점을 안는다.

우선, ‘-으께’에서의 비모음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비자음이 모음간 개재

되었을 때 비모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으ᄃ께’의 /ㅡ/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음에도 비모음으로 난다. 이른바 불투명성으로 포착되는 이 현상은, 적절한 규칙과 규칙순을 상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해명을 시도해볼 수 있다.

(24) 입력형	/으니께/
/ㄴ/ 비모음화	으ᄃ께
/l/ 탈락	으ᄃ께
출력형	[으ᄃ께]

하지만 위의 도출은 이음규칙이 음운규칙에 선행하게 되는 이론내적 모순을 안는다.⁵⁾ 이렇듯 음운규칙과 이음규칙의 위계를 엄격히 하는 설 아래에서는 ‘-으ᄃ께’ 이후의 음운변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다.

둘째로, ‘-으ᄃ께’와 ‘-응께’는 ‘-으니께’가 아니라 ‘-으ᄃ께’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으니’에 ‘-까’가 결합된 형태는 19세기에야 발견되는데, 김주원(1984)에 의하면 이 방언의 /ㄴ/ 비모음화가 18세기에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으니께’의 /l/ 탈락이라는 새로운 규칙은, ‘-으니께’가 아니라 당대의 표면형인 ‘-으ᄃ께’에 적용되었다.

셋째로는, ‘-으ᄃ께’와 ‘-응께’의 병존을 설명하기 어렵다. /ㄴ/ 비모음화는 18세기에 벌써 이루어졌을 수 있지만, ‘-으니께’에서 /l/ 탈락은 적어도 ‘-으니께’가 형성된 후에 발생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25)처럼 후대에 생긴 규칙이 이른 규칙보다 먼저 적용됨을 인정하거나 혹은 (26)처럼 이 방언의 /ㄴ/ 비모음화가 수의적라고 보게 된다.

5) 소신애(2009)에서, 모음소가 비모음으로 나게 된 연후에 비자음이 탈락하는 것이 이음규칙이 음운규칙에 앞서는 이론내적 모순임을 이미 지적했다. 하지만 앞서 최명옥(2006)이 /Vni/ 형태음소군 자체의 이음으로서 [ŋi]를 정의함으로써 이를 해소한 바 있다. 본고에서 지적하는 모순은, 형태음소군의 이음현상으로서의 비모음화를 인정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음소층위의 탈락 규칙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25) 입력형	/으니께/	(26) 입력형	/으니께/
/l/ 탈락	은께	/ㄴ/ 비모음화 (수의적)	-
/ㄴ/ 비모음화	-	/l/ 탈락	은께
조음위차동화	응께	조음위차동화	응께
출력형	[응께]	출력형	[응께]

그렇다면 ‘-으~이~께’로부터 ‘-응께’를 도출해야할 텐데,⁶⁾ 비자음 /ㅇ/의 발생을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부분비음화로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27) 입력형	/으니께/
/ㄴ/ 비모음화	으~이~께
출력형	[으~이~께]
입력형	/으~이~께/
/l/ 탈락	으~께
출력형	[으~께]
입력형	/으~께/
부분비음화	응~께
구강모음화 (비음성 탈락)	응께
출력형	[응께]

/ɲ/에 선행하는 비모음 ‘-~’에 의해 부분비음으로서 약한 [이]이 실현되고, 이것이 기저형에 /ㅇ/ 삽입으로 정립되면 ‘-응~께’가 형성되는 것이다. 비모음화의 환경, 즉 모음 간 비자음이 개재되는 환경을 상실한 ‘-응~께’는 곧 다시 구강모음화해 ‘-응께’가 된다. 물론 구강모음화되더라도, 비자음과의

6) 다만, 경상도 방언에 독립된 음소로서 비모음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보류한다.

인접에 따라 /ㅡ/는 다소의 비음성을 갖게 된다.

전라도, 충청도에 부분비음화에 따른 /o/ 삽입이 제법 넓은 분포를 갖는 반면, 경상도 방언에서는 /o/ 삽입이 빈약하다. 다른 우세한 형태와 병존하는 소수형으로만 출현하는데, 그것은 II.3.1.에서 논술한 부분비음화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탓이다. /ㄴ/이 탈락함으로 비강이 개방되는 구간이 선행모음 /ㅡ/에 해당되어, /ㅁ/의 폐색구간에까지 미쳐 개방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다. 비강 개방의 지속구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경상도 방언은 이를 모음 /ㅡ/에서 모두 소모하게 된다. 더구나 /ㄴ/에 비해 ‘ㅡ’의 비음성이 약하므로, 경상도 방언의 부분비음화가 더욱 개연적이지 못하다.

위와 같이 설명되는 ‘-으니께’→‘-으이께’>‘-으께’>‘-응께’의 일련의 변화는 어미 어중의 모음(군)이 점차로 약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관된 과정으로 보인다. 인접한 두 모음 모두가 비음으로 나던 첫 단계(‘-으이께’)에서, 길이가 짧고 비음성이 약한 ‘ㅣ’가 탈락하고(‘-으께’), ‘ㅡ’의 구간마저 짧아지다가(‘-응께’), 종래엔 이마저 비음성을 상실하게 되었다(‘-응께’). 사용빈도가 높은 문법소의 형태가 모음의 약화를 거쳐 점차로 축소(reduction)되는 것은 범언어적인 보편에 준한다고 하겠다.

한편, 비(非)비모음화권의 ‘-응께, -으니께’는 전라도 방언이 겪은 변화를 그대로 거쳐 형성되었을 것이다. 고형 ‘-으니께’에서 /ㅣ/ 탈락을 거쳐 개신형 ‘-응께’가 형성됐다. 그 분포로 보아, 전라도 방언 서부에서 진원한 /ㅣ/ 탈락의 개신이 구례방언을 통해 하동방언, 진주방언을 따라 이 지역에까지 전파된 듯하다.

3. 소결

경상도 방언의 ‘-으니까’는 비모음화권과 비(非)비모음화권으로 크게 나뉜다. 후자는 전라도 방언에서와 비슷한 분화 과정을 거쳤다.

비모음화권에서는 ‘-으니께’→‘-으이께’>‘-으께’>‘-응께’가 모음약화로써 어미의 형태가 축소되는 자연스럽고 일관된 방향의 변화를 보이는데, 비모음화한 형태를 근거로 후대의 형태가 형성되었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방언에서 ‘-으~께’ 이후의 형태는 ‘-으니까’가 아니라 ‘-으~이~께’를 원형으로 분화한 것이다. 음운변화와 음성변화를 양분하고 비모음(화)을 음운론의 층위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면, ‘-으~께’의 존재를 수용하기 어렵고 규칙순과 개신의 발생 순서를 달리 보는 부담을 갖는다. 부분비음화를 도입함으로써 ‘-으~이~께’로부터 ‘-으께’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V. 결론

연결어미 ‘-으니까’의 분포를 기술하고, 그 분화 과정을 재구했다.

전라도, 충청도 방언의 ‘-으니까’에서 가장 먼저 분화한 형태는 전라북도 일원의 ‘-으니까’이다. 이후 /ㅇ/이 삽입하는 개신이 확산되어 ‘-으니까’를 이루었는데, 전라북도의 ‘-으니까’와 전라남도 서부의 ‘-으니까’만은 이 개신을 면했다. 전라도 서부로부터 /l/ 탈락의 개신이 진원해 전북 서부에는 ‘-으께’를, 전남 서부에는 ‘-으께’를 형성했다.

경상도 방언에는 비모음화를 갖는 동북부 방언과 그렇지 않는 서남부 방언의 대립이 관찰된다. 서남부 방언은 서부방언이 겪은 과정에 준해 ‘-으니까’, ‘-으께’를 형성했다. 동북부 방언은 비교적 복잡하고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으니까’→‘-으~이~께’→‘-으께’→‘-으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써 빈도 높은 문법소의 형태축소라는 보편적인 경향을 따른다.

장애음 앞에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이 삽입된 현상을 각각도로 해석해보았다. ‘-으니까’와 일부 방언의 ‘-으께’를 형성한 /ㅇ/의 삽입은 /ㅁ/의 부분비음화의 결과로 설명했다. ‘-으니까’의 /ㄴ/에서 이어지는 비강의 개방이 /ㅁ/의 폐색구간 일부에까지 유지될 때, 비강으로 통기하는 연구개 폐색 상태가 [이]으로 실현될 수 있음이다. 이는 선행하는 비음성이 강할수록, /l/가 짧고 약할수록, 폐색구간이 길수록 유리할 테므로, ‘-으니까’에서보다는 ‘-으니까’에서 더 개연적이다. 전북방언이 /ㅇ/ 삽입을 면한 탓은 이미 이 방언이 ‘-으니까’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서천방언, 논산방언의 ‘-으니까’는

남북으로 인접한 방언들의 혼효형이다. 이러한 설명은 장애음 앞에 비음 삽입된 수많은 다른 예들을 명백히 포괄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모두 등질적인 현상의 소산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경상도 방언 중 비모음화권의 ‘-응께’ 또한 ‘-으~이~께’로부터 부분비음화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 ‘-응께’의 /ㅇ/은 기저형에 비자음을 갖는 /-으니까/로부터의 도출을 시준하는 양 보이지만, 이러한 설명은 규칙순에 있어 이론내적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개신의 발생 순서와 어미의 형태가 축소돼가는 방향성 따위를 고려하건대, ‘-으~이~께’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분비음화는 ‘-으~이~께’에서 ‘-으~께’를 거쳐 ‘-응께’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구강모음형인 기저형에 새로운 규칙이 더해졌다고보다는 비모음화한 형태가 그 자체로 개신의 입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화 과정을 재구하는 데에는 공식적 규칙순의 개념을 응용했다. 당대의 표면형이 곧 새로운 규칙의 입력형이 된다는 가정을 따라, 적형을 생성하는 규칙순이 곧 개신의 발생 순서와 같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전라도 방언의 분화를 추정하는 작업에서, 부정형 ‘-으닝께’를 도출하는 순서는 가장하고 그것을 저지하는 순서를 채택했다. 동남방언에서도 18세기에 이미 형성된 비모음화형을 새 규칙의 입력형으로 취해 이후의 경로를 재구했다.

상호 이격된 방언 간 혹은 근접한 방언 간에 공유되는 형태가 있을지라도, 그 형성 과정은 다를 수 있다. 전남 동부의 ‘-응께’는 이 방언 개신형인 ‘-으닝께’에 /ㄴ/가 탈락한 후, 강도가 약한 /ㄴ/이 탈락해 개재된 ‘ㅇ’이 남은 형태이다. 전북 방언의 ‘-응께’는 ‘-으니까’에 /ㄴ/가 탈락한 후, /ㄴ/이 접변한 형태이다. 경상도 방언 중 비모음화권의 ‘-응께’는 ‘-으~이~께’에서 /ㄴ/가 탈락한 후 비모음 ‘ㅡ’에 의한 부분비음화로 /ㅇ/이 발생한 형태이다.

참고문헌

- 김소영(2013), 〈폐쇄음 앞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 첨가 현상에 대하여〉, 《방언학》 17, 57~77.
- 김주원(1984),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 《인문연구》 6, 31~56.
-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 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 박명순(1989), 〈거창어의 비모음화와 n, ㄴ 삭제〉,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 논총》, 116~125, 탑출판사.
- 소신애(2009), 〈음성적 요인에 기반한 통시적 음운 변화의 발생 층위〉, 《어문연구》 37.3, 169~193.
- 소신애(2010), 〈파찰음 앞 /ㄴ/ 삽입 현상에 관하여〉, 《국어국문학》 154, 5~32.
- 안주호(2006), 〈현대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적 특성과 형성과정〉, 《언어과학연구》 38, 71~91.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문규(1993), 〈비모음화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4, 93~111.
- 이병선(1966), 〈어중에서의 비음발달에 대하여(기일)〉, 《국어국문학》 33, 35~50.
- 이병선(1967a), 〈어중에서의 비음발달에 대하여(기이)〉, 《국어국문학》 34·35, 335~346.
- 이병선(1967b), 〈비모음화 현상 고〉, 《국어국문학》 37·38, 37~66.
- 이상도·김수정(2007), 〈공기역학자료를 이용한 한국어와 영어 비음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49.3, 85~100.
- 이진호(2001), 〈국어 비모음화와 관련된 이론적 문제〉, 《국어학》 37, 61~84.
- 이진호(2011), 〈국어 음운사 연구를 위한 기본 개념〉, 《관악어문연구》 36, 49~74.
- 정승철(2002), 〈국어 활용어미의 방언 분화〉, 《국어학》 39, 201~406.
- 정승철(2008), 〈방언형의 분포와 개신파〉, 《어문연구》 36.2, 99~116.
- 정인호(2007), 〈소위 ‘비모음화’ 현상의 지리적 분포와 그 성격〉, 《우리말글》 41, 135~162.
- 조희웅·노영근·이선형 편(2010), 《호남 구전자료집 7; 영광군 편》, 박이정.

- 조희웅·노영근·이선행 편(2010), 《호남 구전자료집 8; 강진군 편》, 박이정.
- 조희웅·노영근·임주연 편(2010), 《호남 구전자료집 6; 장흥군 편》, 박이정.
- 조희웅·조홍욱·조재현 편(2010), 《호남 구전자료집 2; 나주시 편》, 박이정.
- 최림식(1992), 〈비모음화의 제약성〉, 《계명어문학》 7, 135~160.
- 최명옥(1974), 〈경남 삼천포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명옥(2006), 〈경북 상주지역어의 공시음운론〉, 《방언학》 4, 193~231.
- 최명옥(2015),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 최성원·전종호(1998), 〈한국어 경음·기음은 중복자음인가?〉, 《어학연구》 34.3, 521~54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 《한국방언자료집 III; 충청북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 《한국방언자료집 V; 전라북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9), 《한국방언자료집 VII; 경상남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0), 《한국방언자료집 IV; 충청남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1), 《한국방언자료집 VI; 전라남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3), 《한국방언자료집 VIII; 경상북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수정(2017), 〈‘ㄴ’ 탈락과 비모음화〉, 《어문연구》 92, 73~96.
- 황병순(2012), 〈‘-으니까’ 방언형의 형태론〉, 《방언학》 15, 75~112.